

退溪學은 역사적 學問인가, 초역사적 學問인가?***

존 굴드 (John I. Gould)*

• 目 次 •

- | | |
|---|---|
| I. 歷史的 이해방법과 超歷史的 이해방법
II. 歷史的 배경에 의한 해석과 普遍性에 의한 해석 | III. 退溪學이 中國哲學·宗教思想을 그대로 답습했는가, 창조적으로 수용했는의 문제
IV. 結 論 |
|---|---|

본인이 이 회의에 주제 발표를 하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유학이나 퇴계학설을 한 9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유학사 또는 퇴계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 동안 나의 연구와 학문적 관심은 중국불교에 대한 비교 종교학이어서 퇴계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더더욱 독촉을 받고서 끝내 나는 퇴계학 연구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문제 몇 가지를 검토발표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 퇴계선생 자체의 사상을 다루지 않고, 우리가 퇴계선생의 사상과 그의 역사적 지위를 신중히 학술적으로 이해할 시에 우리가 학자로서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 동

* 하버드대학 교수

** 원제 : T'oegey Studies ; Historical or Para-historical Discipline?

이 논문은 1981년 퇴계선생 탄생 48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36호(1982) 게재논문

기와 자세, 또 그것에 입각한 이해방법을 말하려는 것이다.

모든 방법론적 해명에 대한 시도는 학자가 내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의제를 밝히는 데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본인은 퇴계학 연구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내가 지닌 입장을 밝혀야 하겠다. 첫째, 비교종교학자로서, 어떠한 종교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전통적 해석을 인정하지만, 전적으로 그를 추정하지 않고자 한다. 즉, 역사의 전체적 흐름에서 보면,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이단이라고 주관적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퇴계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陵王學을 이단이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陵王學을 송대성리학이 명대로 이어져 발전했다 하여 그것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잃게 되어, 결국 외적으로 종교현상을 본 것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둘째, 세계 여러 종교 현상들에 대하여, 일부의 종교적·철학적 이해를 옹호하지 않고자 한다. 즉 단순히 상대주의적으로, 절대주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자 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많은 종교는 각각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인간생활의 총체적 흐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 인간 공동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믿음들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교종교학자로서 과거종교의 기본태도인 「眞理黃金時代」나 「原時有理」나 「永遠返本」등의 이론을 이해는 하지만, 원칙으로서 받아들이지는 않고자 한다. 이를테면, 논어의 「濫古知新」의 원리가 그 당시에는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에 의하여 현대와 현대인이 과거당시나 그 당시의 인간들 보다 타락되었다든가, 혹은 더 좋아졌다든가 하는 가치론적 판단의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더욱이, 현대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옛날의 지혜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학자는 과거를 재조명해 보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시점으로 물러서지는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知新」이며, 현시대와 현재의 자아를 이해하는

것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는 점을 孔夫子도 동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인의 태도와 자세를 밝혔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본, 퇴계학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는 어떠한가? 그 연구를 하는 이해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 1, 퇴계학 연구의 역사적 이해방법과 초역사적 이해방법의 대립.
- 2, 그것의 역사적 배경(당시상황)에 의한 해석과 그의 보편타당성에 의한 해석의 대립.
- 3, 퇴계학의 중국종교사상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는 것과 창조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의 대립.

이 문제는 단순히 학자의 의도에서 생기는 철학적 내용에서도 유래한다. 또 一과 二는 비슷한 종류문제이고 三과 一과 二에 의해서 생긴다.

I. 歷史的 이해방법과 超歷史的 이해방법

이 두 가지 이해방법은 겉으로 보면 상반되는 것 같다. 전자는 퇴계를 한국문화사에 있어서 여러 유학가 가운데 한 인물로 보고 퇴계 당시 사회의 다양한 종교·철학적 취사선택과 정치경제적 요구, 그리고 그 때까지 韓中유학사상의 흐름에 의하여 퇴계생애와 그의 사상을 이해한다. 후자는 전자의 이해방법이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나, 퇴계를 전통 속에서 정통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보전한 유학가로 본다. 후자에 있어서는 전후기의 유학사상의 계승과 발전을 이해하는 근거가 바로 퇴계학설이 된다. 전자가 퇴계학을 이해하기 위해 현대유학 구성사로부터 시작하여 唐宋元明 유학발전사를 거쳐 신라·고려·조선유학사를 통하고 퇴계학과 그에 관한 贊否論을 관찰한다면, 후자는 퇴계학설부터 시작하여 朱程孟孔舜堯으로 수습해 올라가며, 후에 퇴계성리학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학파에 관심을 둔다. 전자는 유학을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여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을 찾아내기 위

해, 필연적으로 전통적 해석의 밖에 서서 본다. 반면에 후자는, 유학전통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옹호하고자 하여 전통적 해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 전자가 성리학구성과 그의 후기발전에 법가·도교·불교와 민속적인 諸요소가 유입되었다고 본다면 후자는 유학의 전통적 해석을 변동시키려는 외적사상과 대항하며 반응해 온 하나의 직선계보로서의 정통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해방법의 상반성은 표면적인 것으로서, 실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학자와 사학을 넘어선 자의 의도는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전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하고, 후자는 그것을 보전하여 전달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 두 가지 접근방법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한 편이 다른 한편의 이해방법보다 우수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그 둘은 각각의 입장을 형성함에 서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자의 입장의 차이 외에 자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퇴계학은 역사의 유물이면서 또한 하나의 종교적 자료이다. 그의 입장과 형식은 퇴계의 사상을 계승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16세기의 철학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상의 종교성을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러한 종교성에 입각한 초역사적 이해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동등하게 정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관련된 이 두 가지 이해방법이 좀 더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비교종교학과 사학에 관한 현대적 이해에 비추어 봄에 있어서 단순한 초역사적 탐구이거나, 종교적 의미와 의의를 비종교적 의미로 환원하는 역사적 탐구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주장하고 싶다. 신화적 의식세계를 떠난 20세기의 우리는 퇴계의 신비적 신념을 그것 나름대로 회복해야 하며, 철저한 역사 비평방법으로 그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

다.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신화적 의식을 신화적 신념으로서 회복함」과 「철저한 역사 비평방법」은 서구사의 초역사적 방법과 역사적 방법의 충돌에서 끌어온 것이다. 이성주의적 계몽시대가 열리고 세계개척운동에 의해 비교신화론이 발생됨에 따라 서구의 기독교가 비절대화되는 시기를 겪게 되었다.

기독교에서 종래 생각해 온 계시로서의 聖典을 과학적으로 증명도 못하고, 역사적으로도 일관성이 없는 인간들의 기록이거나, 신화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초역사적인 전통적 이해방법은 심히 흔들리게 되었다. 성전의 진리가 숭고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라해도, 비리성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신화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었다. 이것이 일부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가 거짓된 것으로 거부되는 조치를 일으킬 기회가 되었으며, 일부 기독교인들(특히 신학자들)에게는 교회사 및 교회 전통과 그것에 근거된 신학을 재검토하게 하는 도전이 되었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에 걸쳐 점점 역사 비평방법이 신학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것에 의하여 經典原文批評論과 經典文學批評論도 생겨 경전전달학과 경전해석사를 연구하게 되었다. 동시에 순수 사학적 환원주의적 경향이 약화되면서 신화적 진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비교종교학이 생겼다.

이로써 계몽시대에서 유래한 과학적 검증원리는 자연·물리과학계에 제한되고, 인문과학계에는 진리의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결국적으로 기독교는 더이상 변화없고 완전히 통일된 전통적 해석을 계속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한결같이 해석할 수 없다. 이를테면 「先朝의 신앙」은 선조 그 자신들의 신앙이지, 자손들인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이다.

이리하여 퇴계학 연구에서도 퇴계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그것을 부정하기 보다는, 한국에 계속 존재하는 유학전통사상의 한 부분으로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순수 초역사적 이해

방법과는 달리 우리가 퇴계 전후의 사상발전사를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어, 그의 사회상황 속에서, 그의 동적이며 생생한 특질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II. 歷史的 배경에 의한 해석과 普遍性에 의한 해석

퇴계학의 풍부한 형이상학적 종교적 성질로 인하여 보편적 해석은 역사적 상황에 따르는 해석보다 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퇴계가 자기의 가르침을 16세기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라기 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보편적인 의도로서 작성했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 다시말해서 퇴계는 천지만물의 과정 속에서 인성에 대한 기본적 관계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16세기의 사회 속에서, 16세기의 생각의 틀을 가진 16세기의 철학자라는 점이다. 우리가 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20세기의 생각의 틀과 16세기의 생각의 틀을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분이 오늘날의 진화론과 같은 이론이나 평등주의적인 인권의식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신과 그 당시의 사회를 오해하고, 현재를 신화화하게 될 것이다.

초역사적 이해방법은 퇴계학을 보편화시킴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생각하는 틀이나 사상적 투영(즉 Intellectual frame of reference)이 변하지 않는다고 추측한다.

이를테면, 논어의 「君子」개념에 대한 보편화된 해석에 있어서는 군자라 함은 누구나 다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성으로 본다. 사회적 신분이나 구체적 상황이나 또는 군자의 이상을 실현함에 수반되는 경제적 제한과는 관계없이 사람이 자기 본성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도의 원리를 깨닫고 따라간다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유학의 전통적 이해를 통해 논어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군자라는 개념에 관한 인식의 변천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면에 상황사학적 해석에서 이

개념이 전국시대의 독특한 계급(지배층)을 뜻한다고 본다. 보편적 해석의 이론적 확일주의는 봉건사회의 구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자의 실제적 경력과 입장들과도 일관(一貫)되지 않는다. 그러나 秦代 이후에 생긴 유학과에 그러한 보편적 의미가 있었을런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상황사학적 해석에서 특수개념의 의미변천·발전의 진로를 잘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 해석을 손상시키기는 커녕 그 해석한 개념의 動的 흐름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가서 상황사학적 해석방법은 위에서 말한 환원주의적 공격으로부터 종교적 의미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유교철학과 윤리들이 총괄적으로 배척당했던 하나의 이유는, 전통 유학자들이 그들 전통의 동적인 발전사를 잊어버리고, 변천하는 사회적 정치적인 요구에 적응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이상적 이해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유교가 낡은 好古主義的 유물이다라는 견해는 오늘날에도 드러나고 있다. 결혼법문제가 한 예가 된다. 그것을 상황사학적으로 분석·이해한다면 그 법의 본 뜻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초역사적 이해방법과 역사적 이해방법과 같이, 보편적 해석방법과 상황사학적 해석방법이 서로 대립한다기보다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는 상황사학적 해석에 근거하여 보다 더 정확한 보편적 해석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 발전을 이해할 때에나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Ⅲ. 退溪學이 中國哲學·宗教思想을 그대로 답습했는가, 창조적으로 수용했는가의 문제

마지막으로 퇴계학의 『한국적임』 『독자적임』 나아가 『퇴계학의 퇴계 다음』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위에서 말했던 상황사학적 해석방법과

관련된다. 철학적 이해체계가 실제 생활의 상황에 근거하듯이, 초역사적사적 보편해석은 상황사학적 해석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한국역사적 상황속에 한국적 유학발전의 문제는, 중국의 상황적 사상사와 대비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나 한국에나 이와 같은 상황사상사는(Contextualized Intellectual History)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상에서의 Marx주의나 Lenin주의는, 전통적인 보편주의를 Mark적 보편주의로 대신했을 뿐이다. 또 Mark주의는 반종교적 태도를 가지는 한 환원주의적 경향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 사회학·정치학·경제학·법학 등의 연구는 그들 사상으로써 상황들과 시간적 구조를 해명해 왔지만 여전히 사상들과 시간적 구조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사상들을 환원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퇴계학의 어느 정도가 중국철학사상의 형식적 수용이 되며, 어느 정도가 한국적인 창조적 수용이 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中韓 사상사를 상황화해서 퇴계가 중국의 상황과 다른 한국 상황 속에서 宋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제거하고 또 왜 그런 것을 취사했던가를 밝힌다면 한국적인(퇴계적인)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IV. 結 論

위에서 언급한 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인간의 종교사상과 철학적 신념들은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학자들이 부딪치는 문제들이다. 새삼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퇴계학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문제점을 보다 의식적으로 사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시도했던 것은 퇴계학에 대한 전통내적과 전통외적 입장의 분석·이해방법을 구별하고, 그 두 방법 사이에 다리를 놓

아보고자 한 것이다.

① 여기서 「초역사적」이란 영어의 para-historical을 번역한다. 원래 para-historical이란 미국 비종교학자인 Ninian Smart의 종교현상학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종교정통내의 학자의 자기종교나 타종교에 있어서 이 초역사적 이해의 대표적 표본이 바로 신학이다. 그러나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 「탈역사적」이나 「유사역사적」이라면 너무나 「비역사적」의 뉘앙스를 품고 「주관적 역사적」이라면 뜻은 더 가깝지만 말 자체가 어색한 것 같다.

(퇴계학연구원 譯)